

# 오감만족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 30일까지 장수읍 의암공원·누리파크 일원서 공연·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개최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27일 화려한 막이 오른다.

축제는 27일부터 30일까지 장수읍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며, 개막행사는 축제 둘째 날에 열리며, 흥이 넘치는 나태주, 박서진 등이 참여하는 트로트 페스티벌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군다.

축제 첫째 날에는 최태성 토크콘서트와 장수 가야문화제가 열려 문화예술과 교육활동을 통해 '전북가야', '장수가야'의 중요성을 알린다.

셋째 날 레드콘서트에는 브레이브걸스, VOS, 육중안 밴드 등이 참여해 붉은 열정과 같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마지막 날에는 스위트로우, 자전거 탄풍경 등이 참여해 감성을 북돋을 낭만콘서트를 펼쳐 폐막의 아쉬움을 달랠다.

이외에도 축제에서는 △풍선아트 △사과떡메치기 △사과골프 △사과볼링 △한우사과대바터트리기 △승마체험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포스터

△장수가야 대장간 체험 △호스피스 티벌 △Red 및 우수농산물 상품전 △장수한우마당 △향토음식거리 △사과 낚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김홍기 축제위원장은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축제장을 찾

는 관람객들을 위해 알차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을 자랑하고 사랑받는 장수군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축제 기간동안 장수 농특산물을 맛보시고,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오감만족의 축제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 기간 중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18억원을 발행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을 10% 할인가격으로 판매해 저렴한 비용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상품권은 축제기간 중 현장에서 판매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축제장과 장수군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축제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angsu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축제진흥팀(063-350-2356)으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고원농·특산물 싱싱장터

### 28~29일 진안고원시장 주차장 일원서 판매행사·이벤트 등 진행

진안군의 농특산물과 신선재료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제1회 농·특산물 싱싱장터'가 오는 28일~29일까지 진안고원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의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의 장을 마련하고, 불거리·즐길거리를 통한 지역민과 관광객, 상인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진안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싱싱 장터에서는 홍삼, 더덕, 도라지, 표고버섯 등 진안군 대표 특산물을 비롯하여 장류, 정과류, 배추, 무 등 김장 재료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행사와 더불어 마술쇼, 미니서커스쇼, 난타 공연, 조대가수가 펼치는 싱싱콘서트와 소소한 생필품부터 1등 대박 경품이 걸린 경품이벤트, 보부상에누리 경매, 다양한 체험 부스 등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싱싱장터를 계기로 우리 진안의 품질좋은 농·특산물이 널리 홍보되고, 진안고원시장과 청년들이 활성화돼 침체된 진안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



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진안고원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하며 지속적인 주말 체험부스 운영, 진안의 관광지 와 시장을 연결한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을 통해 진안고원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정운천 국회의원 초청 특별강연 무주서 열려

### '지역소멸 위기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주제 강연

무주군은 26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운천(사진) 국회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지역소멸 위기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무주군에 새로 부임한 유효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와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추진위원회 정진욱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유효연 부군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모두가 출산, 인구유입 등에 관심을 가질 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무주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강연을 해 준 정운천 국회의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미래세대팀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내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장수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3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서 '의암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나눔숲, 나눔길 등 생활권 녹색인프라 조성을 지원하

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7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3년 녹색자금 운용계획 및 녹색자금 관리규정에 따라 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장수군은 무장애 도시숲 조성분야에 제안서를 제출해 의암공원 무장애도시

숲에 선정됐으며 총 6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보행 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의암공원 내 무장애 도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보행 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숲, 나눔길을 조성해 누구나 숲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 진안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전용 앱(오늘건강)과 블루투스 연동 가능한 손목시계형 활동량, 혈압·혈당계, 체성분 측정기, AI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 기간 동안 보건소 간호사·영양사·운동지도사 등 전문인력

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건강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허약예방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진안군은 그동안 추진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토대로 내년부터 150여 명의 어르신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AI·IOT를 활용해 대면·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안군의 어르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의 역사, 무주인의 자긍심' 최태성 초청 특강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27일 오후 무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군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EBS 한국사 대표 강사를 역임한 권별샘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무주의 역사, 무주인의 자긍심' 특강을 진행한다.

이날 최 강사는 삼한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무주의 역사(주요사건 등)를 흥미롭고 알기 쉽게 강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군민과 공직자들은 '무주의 역사'에 대해 역사 전문가로부터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최태성 강사는 MBC '무한도전' 문화재 특강, KBS 라디오 FM 대행진 '발발하스토리' 코너 진행, 역사저널 패널 출연 등 방송계에서 역사관련 왕성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적극 전개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과 무주에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무풍면민의 날'과 22일 '적상면민의 날'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설치, 출향 향우 및 주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군민 인식 확산을 위해 군청·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홍보전단지 및 배너를 비치했다.

무주군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전광판과 이장회의, 유관기관 워크숍 등 각종 회의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해 나가고 있다. 연말에는 각종 향우회와 자매결연기관 등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외의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